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1.(수) 10:00 (2025. 11. 11.(수) 석간)

한국고용정보원, 진천군과 전국 최초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인공지능(AI) 청년일자리’ 추진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격차 해소’ 선도를 위해 지역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 공공 인공지능(AI)인프라인 고용24 ‘잡케어서비스’ 무상 공유로 지자체 예산절감 및 행정 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추진
- 지자체·지역대학 거버넌스 구축해 청년 취업부터 지역 정주까지 돕는 ‘ESG 상생 모델’ 가동

국가 고용정보 및 공공 AI 선도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충북 진천군(군수 김명식)과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혁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진천군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고용정보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창수 원장과 김명식 진천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격차 해소를 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지역 대학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AI고용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한 사례이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써 보유한 핵심 AI기술(‘잡케어’)을 인근 지자체에 개방·공유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디지털 고용서비스 격차 완화, 지자체 중복 개발 방지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 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취업 및 정주 여건 개선(지역소멸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ESG)과 지역 상생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잡케어(JobCare)’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설계 지원 서비스다. 구직자가 취업 준비 현황과 이력서를 입력하면, 국가 고용 빅데이터(고용24·워크넷 등)를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직무역량과 노동시장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맞춤형 직업·임금·훈련·자격증 정보와 최적의 커리어 경로를 도출해 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진천군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자체 시스템 구축 대신, 검증된 국가 AI고용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스마트 예산 절감형 행정 혁신’을 달성하게 된다. 수억 원대의 시스템 개발·운영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AI 직업상담 인프라를 지역행정현장에 신속히 이식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4년간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진천군 일자리 상담사용 잡케어 시스템 보급 및 안정적 서비스 지원, 지자체 상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실무·기술 자문, 현장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전국 지자체 확산 표준모델 구축을 전폭 지원한다.

진천군은 청년 구직자 모집 및 잡케어 기반 ‘1:1 AI 맞춤형 취업 컨설팅’ 운영, 관내 우수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정보 연계, 상담 및 취업 연계 성과 관리 등을 통해 AI 직무역량 진단부터 맞춤형 역량 강화, 관내 우수기업 매칭, 지역안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의 첫 실천 과제로, 양 기관은 오는 11월 25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재학생과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 AI 맞춤형 적격 잡케어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가 지역 대학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청년들과 대면 소통하며 잡케어 실습을 지원하고, 개인별 역량에 부합하는 직무 탐색과 구체적인 취업 로드맵 설계를 돕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국가 고용정보 핵심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 파트너로 진천군과 손을 잡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라며, “검증된 국가 AI 고용 인프라와 진천군만의 현장 밀착형 행정을 결합해, 청년들이 진천에서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일자리 혁신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격차 해소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청년과 지자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본격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 성과인 AI 잡케어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여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전국 지자체 상생 표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보현 (044-202-7671)
		담당자	사무관	조규석 (044-202-7674)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AI고용서비스팀	책임자	팀 장	송성희 (044-202-8459)
		담당자	과 장	김경렬 (044-202-84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